"제주 수출품, 국가·품목 다변화해야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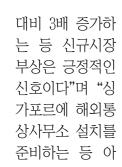
■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4차 회의 김승준 의원 "아세안 프리미엄 시장으로 확대를"

제주도가 외교 영역 확장뿐 아니라 경제 협력 분야에서 외연을 넓히기 위해 '아세안 플러스알파' (아세안 $+\alpha$)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, 수 출 국가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세 심한 정책을 요구하는 주문이 제주 도의회에서 나왔다.

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 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 4차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(더불어 민주당, 제주시 한경・추자면)은 제 주지역 수출 동향과 도정의 수출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.

김 의원은 "2021년의 경우 역대 최고 수출실적, 수출증가율, 수출 물량을 동시에 달성하며 사상 첫 2 억달러를 돌파했지만, 지난해는 전 년 대비 13.9% 감소했다"며 "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중화권(홍 콩, 중국)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 하락을 주도한 것 으로 보인다"고 지적했다.

김 의원은 또 "전체 수출은 감소 했지만, 아세안 시장의 수출비중이 2018년 6.6%에서 2022년 18.7%로 대폭 증가한 데다 수출액도 2018년



김승준 의원

세안 시장을 공 략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 다"고 제주도의 아세안플러스알파 정책을 언급했다.

그는 이어 "지난 1월 인도네시아 출장시에 자카르타 쇼핑몰에서 제 주산 레드향이 3kg에 약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"며 "제주감귤을 비롯한 제주산 농산물이 인도네시 아를 비롯한 아세안의 프리미엄 시

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수출 경로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"고 지적했다.

김 의원은 "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이 의무 화하는 등 수출에 필요한 인증 사 항 등에 대해 사전준비가 돼야 수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"고 덧붙였다.

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 력국장은 "싱가폴 등 직항로를 통 한 다양한 사업을 우선 전개하고. 앞으로 추가적인 발전인 주변국 아 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과 개척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강다혜기자 dhkang@ihalla.com

是巴路山村

"무단횡단 금지시설, 생애주기 관리를"

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로안전 시설물로써 도심부 도로의 중앙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 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 방호 기능이 없는 시설이다. 보행자 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 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,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 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 하고 있다.

국토교통부(2021. 6)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무단횡 단 금지시설은 차량 충돌 시 쉽 게 부러지지 않고, 사고 발생 후 에도 본래의 형상과 기능 유지, 지주와 횡방향 부재로 구성된 난간(펜스)과 유사한 형상이다.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

도심속 도로 중앙분리대 처짐·변형 등 자주 발생 설치서부터 폐기까지 관리로 효과 극대화 필요

재질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과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,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.

제주에는 2014년부터 무단횡 단 금지시설이 도입되어 현재까 지 약 49km(도 21km, 제주시 23 km, 서귀포시 5km)를 설치했으며 5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됐다.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최초시설 이후 현재까지 약 25km가 보수 됐고 유지보수비도 약 33억원 (전체 시설비의 66%)에 달한다.

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 사에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 파손 가지는 검토되어야 한다.



김 기 환 제주자치도의회 의원

첫 번째, 무단횡단 금지시설 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단횡단 사고 발생 가능성, 횡단보도 신 호체계 개선 불가능, 보도 측 방 호울타리 미설치, 최소한 무단 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 (0.5m) 이상 확보 등 4가지 조 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.

도내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는 구간도 많다.

두 번째 태풍 내습(강풍)시 노후 시설의 전도 및 차량충돌 등에 의한 부재 파손 시 즉각적 인 유지보수 지연으로 2차 교통 사고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. 월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해 유지 보수하고 설치(제품, 장소, 일 자, 시설량 등) 및 유지보수 이 력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등 체

세 번째 파손 및 훼손 등으로 철거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무 단 폐기 또는 야적되고 있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. 적법한 절 차에 의한 야적 후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관리가 필요하다.

도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불부합 구간은 철거하고 부합 구간은 파손 및 기능 저하 시 유지보수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및 관 및 훼손 등으로 철거된 무단횡 리대장 기록으로 이력 관리에 단 금지시설이 무단으로 야적 나서야 한다. 즉 설치에서 폐기 및 폐기돼 있어 강력하게 시정 까지 전 과정의 생애주기관리 을 요구한 바 있다. 도로안전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함으로써, 설로써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고 도로안전시설물로써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다하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 으로 기대한다.

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

제주시 2개·서귀포시 7개 마을서 시범 실시 보상금 3억 전액 지방비… 재원확보는 과제

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 핵심 공약인 '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'가 올해 9개 마을 시 범 사업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 운데,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 적인 재원 확보가 과제로 제시된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시 2 개,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 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.

'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'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 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 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 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 한 보상(인센티브)을 지급하는 제 도다. 신청한 마을은 제주시 저지 리・덕천리, 서귀포시 호근동・도순 리·덕수리 등이다.

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다고 설명했다.

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 인 꽃길 조성, 해먹 및 밧줄체험공 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9개 마 을에 총 2억 9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·의결했다.

이에따라 확정된 마을별 대상지 역과 활동 유형을 보면, 제주시의 경우 저지곶자왈·저지오름 인근에 서 백서향 증식 복원, 오름곶자왈 관리 등이 이뤄진다. 덕천리에서는 마을 습지를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, 습지조성관리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.

서귀포시에서도 미로숲, 마흐니 숲, 의귀천, 효돈천, 덕수곶자왈 등 에서 주로 탐방로 정비, 정화활동 등의 활동을 벌인다.

대상지역에는 절대·상대보전지 동·오조리·수망리·의귀리·하례2 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대가 출이 일어나고, 평상시에는 건천 홍수량 수문조사계획 수립 연구 용 다수 포함됐다.

도는 신청한 9개 마을에 대해 사 제주도는 올해는 사업 첫 해이자 리나 2019년에 마련된 환경부의 업 대상지, 활동 유형, 사업비 등을 시범사업인 만큼 법인격이 있는 마 '홍수량 산정 표준지침'에 따라 홍 망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▷수문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'생태계서 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, 수량을 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'회의를 개 추후 용역 결과를 통해 토지소유자 서는 제주지역 하천유역의 고유한 수문조사망을 활용한 연차별 세부 최했다. 도는 이 자리에서 활동유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수 있 강다혜기자



지난 2020년 8월 태풍 '마이삭'으로 인해 내린 많은 비로 범람 직전인 월대천. 한라일보 DB

홍수량 산정에 제주 하천유역 특성 반영

도, 올해 1억5000만원 투입 연구용역 추진

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강 우·지형·지질특성 등 지역 특수성 을 고려해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고 6일 밝혔다.

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하천은 집 중호우시 짧은 시간에도 지표면 유 상태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. 그 역'을 추진할 예정이다.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,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.

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 빈도 및 집중호우 규모 확대, 해수 면 상승 가속화 등이 심화되면서 홍수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 고 있다.

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'제주 맞춤형

용역에서는 ▷유역별 수문조사 조사망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▷ 추진계획 수립 등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. 강다혜기자

주택·아파트·상가 빌딩

यवष्य भारत स्था

시설물·금속·창호·도장·방수 조경시설물·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. 4층

010-4324-7080

F:064)723-1045 / E:ehdrb0064@hanmail.net





보급형, 경제형, 고급형, 플래티넘 中 선택







'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'

제주시/서귀포시 무료 방문 A/S 및 무료 청력검사 ` **化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! 기다렸수다!**

△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▷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

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🔻 🔾 를 검색해 주세요

25 064-725-9275 ※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(무료주차)

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_{제주시버스터미널}

